

보도시점 2026. 9. 30.(수) 06:00 배포 2026. 9. 29.(화) 14:00
2026. 9. 30.(수) 석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에 '찾아가는 식품 서비스' 첫 운영 시작

- NH투자증권, 농촌의 식료품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
-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10개 군에서 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이동장터 운영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인 영양군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식품 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식품 서비스 사업')이 처음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식품 서비스 사업은 NH투자증권이 농식품부와 뜻을 같이하여 식료품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주민들을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면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영양군에서 처음 운영되는 '식품 서비스 사업'은 지역 활동가들이 만든 (주)농업회사법인 별마당에서 차량 운행 및 배송을 담당하게 되고, 영양군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이동장터 차량의 운영 및 홍보 등을 위한 행정적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이동장터 차량은 9월 28일부터 주 5회, 하루에 1개 면을 찾아가 마을 회관 등에서 식료품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판매하고, 주민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급 받은 지역화폐를 사용하여 손쉽게 물품을 구매하면 된다. 또한, 현장에서 구비하기 어려운 물품은 주문·배송서비스를 통해서도 주민들이 구매할 수 있어 과거에 비해 구매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양군 요일별 운행 지역>

요 일	월	화	수	목	금	비 고
운행 지역	청기면	일월면	수비면	석보면	입암면	면지역 운행 시, 읍소재 인접 마을 경유

※ 요일별 운행 동선: 주 5일, 1일 2회 운행(주말 및 공휴일 미운행)

영양군 이외에도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인 순창군 등 9개 군에서도 식품 서비스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 중 6개 군은 4분기 중에 식품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이동장터 차량 구매·개조, 운영 주체 선정 등을 준비 중에 있다. 나머지 3개 군에도 10월 중에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교부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을 연계한 ‘찾아가는 식품 서비스’ 사업은 주민·공동체, 사회연대경제조직 등을 통해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며, 영양군을 비롯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에 ‘찾아가는 식품 서비스’가 지역화폐의 소비처로서 농촌 주민의 편의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2026년 찾아가는 식품 서비스 지원사업 참고자료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책임자	과 장	송재원 (044-201-1571)
		담당자	사무관	이아름 (044-201-1576)
담당 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	책임자	부 장	이종원 (02-368-8961)
		담당자	대 리	전혜성 (02-368-8966)

□ 사업명 : 농촌 찾아가는 식품 서비스 지원 사업

□ 지원사항: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한 사업비(차량구매 등) 지원

* 출연기업: NH투자증권

□ 참여지역: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10개군*

* (1차 농촌기본소득 지역, 1억원/군) 정선, 청양, 순창, 장수, 신안, 영양, 남해,
(2차 농촌기본소득 지역, 8천만원/군) 화천, 진안, 무주

** 1차 참여지역은 기금 교부 완료, 2차 참여지역은 재단 심의위원회 심의·확정 후 행정 절차(협약체결 등)를 거쳐 기금 교부(10월 예정) 후 사업 추진 예정

□ 사업내용: 지리적 특성과 기존 인프라 고려, 지역 맞춤형 식품 전달 체계 구축

구분	지역	운영 방식
이동형	순창군 정선군	소매점이 없는 사각지대 마을을 냉장·냉동 탑차가 정기적으로 순회 하며 현장에서 직접 물품을 판매하는 움직이는 장터 모델
주문배달형	남해군	공공배달앱을 활용해 수요를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집 앞이나 경로당까지 당일배송 또는 정기배송 모델
혼합형	영양군 신안군 장수군 청양군 화천군 무주군 진안군	이동식 차량 판매를 기본으로 하되, 사전에 접수된 물품을 각 가정에 개별 배송하는 서비스를 병행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모델